|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| | 보 도 참 고 자 료 | | |
|---|---|---|---|---|
| 배 포 일 | 2018. 1. 16. (총 7 매) | | 담당부서 | 감염병관리과<br>검역지원과 |
| 감염병관리과 | 과 장 | 조 은 희 | 전 화 | 043-719-7120 |
| | 담당자 | 이 혜 림 | | 043-719-7127 |
| 검역지원과 | 과 장 | 박 기 준 | | 043-719-7140 |
| | 담당자 | 손 태 종 | | 043-719-7144 |

# 필리핀 여행 시 세균성이질 감염 주의 당부!

◇ 2018년 신고된 세균성이질 환자 36명 중 26명 필리핀 방문

* 2017년 1명(1.1~1.15) → 2018년 36명(1.1~1.15)

◇ 필리핀 여행 시 감염병 예방수칙 준수 당부

*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, 음식 익혀먹기,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 등

□ 질병관리본부(본부장 정은경)는 2018년 해외유입 세균성이질 환자가 전년 대비 급증*하고, 신고 환자 중 72.2%(26명)가 필리핀 세부를 여행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당 지역을 방문할 때 수인성·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* 1월 15일 기준, '17년 1명(국내발생 1, 해외유입0) → '18년 36명(국내발생 7, 해외유입 29)

< 해외 여행자 대상 수인성·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 >

1.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씻기
2. 음식 익혀먹기
3.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
4. 길거리 음식 먹기 않기
5. 과일, 채소는 먹기 전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○ 제1군 법정감염병인 세균성이질은 이질균(*Shigella* spp.) 감염에 의한 급성 장관 질환으로 균 감염 12시간~7일 후 발열, 구토, 복통, 수양성 또는 혈성 설사 등의 증상을 나타내며 우리나라에서는 연 100~300명 정도 발생한다.

○ 2018년 1월 15일 현재 세균성이질 신고환자 36명의 역학조사서를 확인한 결과, 26명이 2017년 12월 28일부터 2018년 1월 초까지 필리핀 세부지역을 여행한 후 설사, 발열, 복통 등의 증상을 나타냈다.

□ 질병관리본부는 필리핀 여행 후 세균성이질, 콜레라와 같은 수인성·식품매개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방수칙을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여행 중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올바른 손씻기, 안전한 음식 섭취, 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, 포장된 물과 음료수 마시기, 과일·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 먹기와 같은 수인성·식품매개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한다.

○ 귀국 후 공항에서 검역관에게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하고, 발열, 설사, 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검역관에게 신고하여 검사를 받고, 결과 통보 시까지 다른 사람과의 접촉을 자제하도록 한다.

○ 입국 후 발열, 설사, 복통과 같은 장관 감염 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도록 한다.

□ 또한, 필리핀 여행 후 발생한 설사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서는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로 신고할 것을 당부하였다.

○ 아울러 우리 국민이 질병 정보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, 질병관리본부 콜센터(☎1339)로 문의하면 된다.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<붙임> 1. 세균성이질 발생 현황
2. 세균성이질 개요
3. 세균성이질 FAQ
4.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# 붙임 1 세균성이질 발생 현황

## □ 2018년 세균성이질 신고 현황

(단위: 명)

| | | 확진환자 | 의사환자 | 병원체보유자 | 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 | | 19 | 15 | 2 | 36 |
| 국내발생 | | 1 | 6 | 0 | 7 |
| 해외 유입 | 필리핀 | 17 | 7 | 2 | 26 |
| | 필리핀 외 | 1(인도) | 2(베트남) | 0 | 3 |

* 2018년 1월 15일 기준 잠정통계

## □ 연도별 세균성이질 발생 현황

| 구 분 | 2011년 | 2012년 | 2013년 | 2014년 | 2015년 | 2016년 | 2017년*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신고수(명) | 171 | 90 | 294 | 110 | 88 | 113 | 111 |
| 국내발생(명) | 64 | 48 | 229 | 72 | 63 | 90 | 67 |
| 해외유입(명) | 107 | 42 | 65 | 38 | 25 | 23 | 44 |

* 2017년은 잠정통계

## □ 해외유입 세균성이질 방문국 현황

| 연도 | 2011년 | | 2012년 | | 2013년 | | 2014년 | | 2015년 | | 2016년 | | 2017년 |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해외유입 계(명) | 107 | | 42 | | 65 | | 38 | | 25 | | 23 | | 44 | |
| 방문국별 신고수¥ (명) | 방문국 | 신고수 (명) | 방문국 | 신고수 (명) | 방문국 | 신고수 (명) | 방문국 | 신고수 (명) | 방문국 | 신고수 (명) | 방문국 | 신고수 (명) | 방문국 | 신고수 (명) |
| | 인도 | 31 | 인도 | 15 | 캄보디아 | 28 | 필리핀 | 10 | 필리핀 | 5 | 베트남 | 7 | 필리핀 | 19 |
| | 캄보디아 | 30 | 캄보디아 | 11 | 인도 | 15 | 인도 | 7 | 인도 | 4 | 라오스 | 3 | 베트남 | 6 |
| | 필리핀 | 15 | 필리핀 | 5 | 베트남 | 11 | 캄보디아 | 6 | 태국 | 3 | 인도 | 2 | 인도 | 3 |
| | 인도네시아 | 10 | 베트남 | 4 | 필리핀 | 4 | 라오스 | 3 | 라오스 | 2 | 캄보디아 | 2 | 캄보디아 | 3 |
| | 중국 | 8 | 인도네시아 | 4 | 중국 | 2 | 베트남 | 3 | 베트남 라오스 | 2 | 필리핀 | 2 | 라오스 | 2 |
| | | | | | | | | | 인도네시아 | 2 | 괌 | 2 | 브라질 | 2 |
| | | | | | | | | | 중국 | 2 | | | | |

* 2017년은 잠정통계

¥ 연도별 신고 수 기준 상위 5위에 해당하는 방문국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# 붙임 2 세균성이질 개요

| | |
|---|---|
| 정 의 | ▫ 이질균(*Shigella* spp.) 감염에 의해 급성 염증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 |
| 질병 분류 | ▫ 법정감염병 :제1군<br>▫ 질병코드 : ICD-10 A01.1-A01.4 |
| 병원체 | ▫ 이질균(Shigella spp.) : 그람음성 막대균<br>- *S. dysenteriae, S. flexneri, S. boydii, S. sonnei* (각각 serogroup A, B, C, D에 해당)<br>▫ 이질균의 점막 침입에 의해 전형적인 양상인 혈액, 점액 및 화농성 설사가 나타남 |
| 병원소 | ▫ 사람 |
| 전파 경로 | ▫ 오염된 식수와 식품매개로 주로 전파됨<br>▫ 환자나 병원체 보유자와 직접·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 |
| 잠복기 | ▫ 12시간~7일(보통 1~4일) |
| 증 상 | ▫ 고열, 구역질, 구토, 경련성 복통, 설사(혈변, 점액변), 잔변감 등<br>▫ 경증의 경우, 증상은 4~7일 후 저절로 호전되며 무증상 감염도 가능<br>▫ *S. dysenteriae*가 가장 심한 증상을 보이고, *S. flexneri, S. sonnei*로 갈수록 임상증상이 약해짐 |
| 진 단 | ▫ 검체(대변, 직장도말물)에서 *S. dysenteriae, S. flexneri, S. boydii, S. sonnei* 분리 동정 |
| 치 료 | ▫ 대증 치료 : 경구 또는 정맥으로 수분, 전해질 신속히 보충<br>▫ 항생제 치료 : 항생제내성을 고려한 약제 선택 |
| 전염 기간 | ▫ 이환기간 및 증상 소실 후 대변에서 균이 검출되지 않을 때까지 전파 가능하며, 보통 발병 후 며칠 ~ 4주 이내 전염력이 소실<br>▫ 드물지만 보균상태가 수개월 이상 지속 가능 |
| 치사율 | ▫ 적절한 치료시 1% 내외<br>▫ 치료 받지 않으면 10~20% 정도 |
| 관 리 | <환자 관리><br>▫ 증상 소실 후(항생제치료를 했을 경우 항생제 치료 완료 후 48시간 후) 24시간 간격으로 대변이나 직장도말물 배양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확인 후 격리 해제<br>▫ 무증상 감염인 관리 : 병원체 보유를 확인 후 48시간 경과 후(만일 항생제를 투여한 경우에는 항생제를 중단하고 48시간 경과 후) 24시간 간격으로 대변이나 직장도말 배양검사에서 2회 연속 음성 확인 후 격리해제<br><접촉자관리><br>▫ 발병여부 관찰(마지막 노출 가능시점부터 7일까지 발병여부를 감시)<br>▫ 고위험군(식품업종사자, 수용시설 종사자 등)는 24시간 간격으로 대변배양검사 2회 검사 음성 결과 나올 때까지 음식취급, 보육, 환자 간호 등 업무제한<br>▫ 접촉자 중 유증상자인 경우 환자관리와 동일하게 검사 실시 후 해제 |
| 예 방 | ▫ 일반적 예방<br>- 올바른 손 씻기의 생활화 :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 씻기<br>- 안전한 음식 섭취 : 음식 익혀먹기, 물 끓여 마시기<br>- 위생적인 조리하기 |
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# 붙임 3 세균성이질 FAQ

Q1

**세균성이질은 무엇인가요?**

**해답** 이질균(*Shigella* spp.) 감염에 의해 급성 염증성 장염을 일으키는 질환입니다

Q2

**세균성이질 증상은 무엇인가요?**

**해답** 고열과 구토, 경련성 복통, 설사가 주요 증상이며 전형적인 경우는 대변에 혈액이나 고름이 섞여 나올 수 있습니다. 또한 중증일 경우 경련, 두통, 기면, 경부 강직, 환각 등 중추신경계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.

Q3

**세균성이질은 어떻게 전파되나요?**

**해답** 세균성 이질균에 오염된 물 또는 음식을 섭취하여 감염됩니다. 매우 적은 양의 세균으로 감염될 수 있어 환자나 병원체 보유와 직·간접적인 접촉에 의한 감염도 가능합니다. 또한 환자와 같은 장소에서 수영을 하는 경우에도 물에 의한 감염도 가능합니다.

Q4

**세균성이질 예방 방법은 무엇인가요?**

**해답**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로 올바른 손 씻기 등 개인위생, 안전한 음식 섭취(음식 익혀먹기, 물 끓여 마시기)가 중요합니다.

Q5

**세균성이질 치료방법은 무엇인가요?**

**해답** 대증 치료로 전해질과 수분을 공급합니다. 항생제의 경우 증상이 심한 경우나 접촉자 관리 또는 집단발병 시 관리를 목적으로 투여할 경우 이환기간과 세균 배설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.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
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# 붙임 4 해외여행 감염병 예방수칙

## 3. 여행 후가 중요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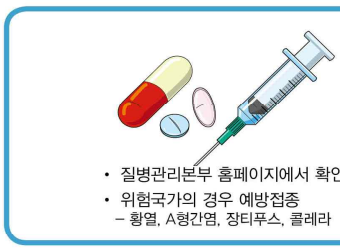
❶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검사를 받아요! (건강상태질문서 작성)
❷ 병원을 방문하여 여행한 국가와 지역을 알리고 검사 및 치료를 받습니다!
❸ **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**로 연락해 주세요!

## 동남아 여행자를 위한 감염병 예방수칙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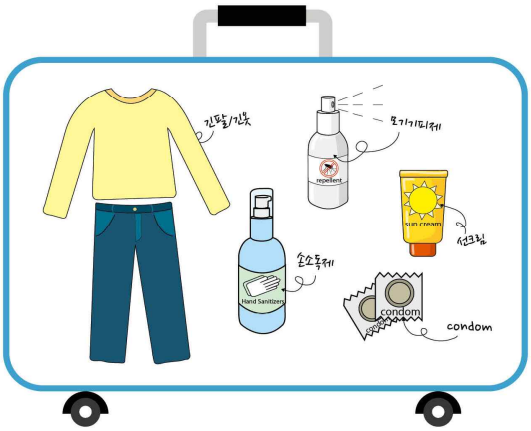
질병관리본부

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

## 1. 외국에 가기 전에 준비해요!



-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
- 위험국가의 경우 예방접종
  – 황열, A형간염, 장티푸스, 콜레라




## 2. 여행가서 주의할 사항이에요.

30초 이상 손씻기

익혀먹기

길거리 음식 먹지 않기

포장된 음료수

과일, 채소는 먹기 전 깨끗한 물에 씻어 껍질 벗겨먹기

모기 방제

OPEN 출처표시
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

질병정보 궁금할 때 감염병이 의심될 때 1339 질병관리본부 콜센터